

광주시 주부의 개인 속성과 일상행동에 관한 연구

김 송 미*

A Study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Daily Activity of Housewives in Kwangju City

Song-Mee Kim*

요약 : 본 논문은 여성의 취업 선호 현상으로 인한 사회 참여가 높아짐으로서 나타나는 여성의 역할과 일상 행동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 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 132명의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나타나는 일상 행동 궤적을 조사하고, 이를 개인 속성과 관련시켜 고찰하였다.

일상 행동은 하루의 노동 행동과 여가 행동 및 수면을 중심으로 7개의 범주로 세분하였으며, 개인 속성은 연령, 취업정도, 교육정도, 가족수, 주거형, 거주지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전반적으로 개인 속성과 일상 행동의 관계는 취업 정도에 의해 평일과 토요일의 일상 행동에 대한 판별이 가능하였다. 둘째, 1주일의 일상 행동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분류할 때, 토요일에 공간적 이동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셋째, 개인 속성과 통행수의 관계에서는 토요일 전업 취업 주부일수록 4회 이상의 다목적 통행을 나타냈다. 넷째, 주기수와 통행수의 관계는 주기가 빈번해질수록 다목적 통행을 나타내나, 1회 주기가 대부분이며 평일에 두드러졌다. 다섯째, 개인 속성과 행동 패턴의 관계는 평일과 주말에 따라 다르나, 전반적으로 WH, LH, WLH, LHLH 형을 나타냈다.

주요어 : 일상 행동, 주부, 개인 속성, 다목적 통행, 광주시

Abstract : A Study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Daily Activities of Housewives in the City of Kwangju.

This study examines housewives' daily activities, focusing up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asking of personal trip for the weekdays and the weekend. Daily activities are classified into 7 categorie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are revealed by age, occupation, a degree of education, number of family, an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relations between daily activitie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are influenced by housewife's occupation. Daily activities of housewives who have jobs are different from those who do not have jobs for a weekday as well as for a weekend. 2) Housewives' daily activities show very busy and vigorous on Saturday. 3) Housewives who are employed are willing to make multipurpose trips on Saturday. 4) For a weekday, housewives' daily activities are inclined to make one cycle trip in a day, and the more trip cycles are, the more multipurpose trips are made. 5) The relationships between daily activitie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show the pattern of WH, WLH, LHLH as it can be grouped.

Key Words: individual characteristics, daily activity, housewives, multipurpose trips, Kwangju city.

1. 서 론

1) 연구 목적

21세기를 향한 사회 경제적 변화의 양상은 제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화, 고도 정보화, 산업 구조 고도화, 노령 인구의 증가, 가치관의 다양화, 여가 시간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조류는 사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 전반에도 적

* 전남대 지리학과 시간 강사(Part-time Lecturer, Dep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지 않는 파급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외 여행의 증가, 개인용 통신 매체 소지를 증가, 노후 대책 마련, 여성의 취업 선호, 적극적인 여가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즉, 사회 구조의 변화는 개인의 생활 패턴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 때, 생활 패턴의 변화는 일생을 단위로 하는 장기적 변화에서부터 하루를 단위로 하는 단기적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변화의 기본은 21세기 사회의 주요 주제인 '삶의 질 (quality of life)'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변화의 조류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취업 선호 경향은 전통적으로 여성 인력이 주로 가정에서 소용되던 것에서 가정외, 즉 사회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여성 인력의 사회로의 확대는 취업자는 물론 미취업자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핵가족화에 따른 개인의 여가 시간 증대로 여가 활용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는 여성 개인 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성 인력이 사회로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여성의 역할과 일상 행동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단순히 여성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부라는 주체를 대상으로 그들의 하루를 단위로 하는 일상 행동 궤적을 조사하고, 이를 그들의 개인 속성과 관련시켜 고찰해 보았다.

지금까지 지리학에서 일상 행동에 관한 연구는 행태 지리학, 시간 지리학 등에서 다루어져 왔다.

한편, 공간 행동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특정한 행동을 개별적으로 다루어왔다. 예를 들면, 소비자 행동, 통근 행동, 여가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상기의 행동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실에서 단독으로 행해지기보다 병행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말하자면, 특정한 공간 행동은 일상 행동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일상 행동은 현실에서 다목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일상 행동의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다목적 행동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다목적 행동에 관한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도시 교통 계획 분야에서 주로 교통 공학적 접근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지리학내에서는 종래의 공간 선택 모델의 확장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Hanson (1979)이나 Burnett (1980)는 다목적 행동을 고려한 행동 모델의 중요성을 밝혔으며, 이에 대한 사례 연구로는 Hanson (1980, 1983)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시간지리적 접근에 심리학의 선택 이론과 경제학의 효용 이론을 가미한 포괄적인 행동 모델의 이론화를 제시했다. 둘째, 개인의 하루 행동의 궤적이나 자택외의 외출 활동을 시간축 상에 표현하려는 시간지리학적 접근에 의한 연구가 행해졌다. 이러한 연구는 외출 활동을 포함한 일상 행동의 패턴과 그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시공간상의 제약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若林芳樹, 1984; 神谷浩夫, 1987; 岡本耕平, 1995). 셋째, 제약의 개념을 확대한 복지적인 측면의 사례 연구로서 Hanson (1977), Hanson and Hanson (1980)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취업 여성이나 노인을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보고, 이들에게 치해 있는 사회적 불이익을 고찰하였다.

이상, 일상 행동에 관한 연구의 위치를 개략해 보았다. 여기서 본 연구의 위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는 주부의 일상 행동 궤적을 고찰하기 위해 시간 지리학적 접근에 교통 공학적 접근을 원용하였으며, 그 패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종래 공간 선택 모델의 일환인 개인 속성과의 관련을 추구하였다.

2)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 지역

자료 수집 방법은 설문지에 의한 면접 조사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개인 속성과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에 대한 1일 행동의 시공간 행동 궤적을 기입하는 것이다. 설문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부¹⁾이며, 이들의 개인 속성으로 연령, 취업 정도, 교육 정도, 가족수, 주거형, 거주지 등²⁾을 조사하였다. 총 면접자수는 239명이나, 이 중 조사 내용 일부가 누락되거나 불확실한 경우를 제외한 132명만을 유효한 분석 대상으로 취하였다. 조사 시기는 1995년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이다.

분석 방법은 먼저, 조사된 시공간 행동 궤적에

의해 일상 행동 분류를 행하고, 행동별로 소요 시간을 파악하였다. 다음, 개인 속성과 일상 행동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일상 행동을 평일과 주말의 행동으로 분류하고, 주말의 행동은 다시 토요일과 일요일의 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평일과 주말에 따라 개인 속성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고찰하기 위해서이다. 평일과 주말에 대한 각각의 일상 행동과 개인 속성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주기수와 통행수의 관계, 둘째 개인 속성과 통행수의 관계, 셋째 개인 속성과 행동 소요 시간의 관계, 넷째 개인 속성과 행동 패턴의 관계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각 χ^2 검정³⁾을 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 속성과 일상 행동에 대해 평일과 주말별로 각각 판별 분석을 실시⁴⁾하였다.

연구 대상 지역은 광주광역시⁵⁾이다. 광주시는 최근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시역의 확대가 진전됨으로서 도심 기능의 분산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도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동구의 주요 상권이 북구나 서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에 그 기능을 상실당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각 구의 인구 밀도 변화⁶⁾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동구의 인구 밀도는 감소하고, 북구나 광산구의 인구 밀도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서구는 광주시에서 최고 인구 밀도 지역으로 최근 분구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광산구의 경우, 타구에 비해 인구 밀도나 토지 이용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서, 광주시는 동·서의 불균형한 환경하에 놓여 있다. 이는 광산구가 1987년 구 송정시를 중심으로 한 광산군 일대의 광주 광역시 편입에 의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동쪽의 광주시에 비교하면, 아직 촌락적 환경이 대부분이나, 최근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일상 행동 분류와 특성

일상 행동의 분류는 국제적으로 널리 응용되고 있는 Szalai (1972)의 방법을 응용했다. Szalai는 행

동의 범주를 96개로 분류하였으나,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주는 크게 3개이며, 이를 다시 집안의 행동인가 집밖의 행동인가에 따라 세분하였다. 먼저, 1일 행동은 노동, 여가, 수면으로 3분류 하였다. 다음, 노동은 직업 노동과 가사 노동으로 분류하고, 후자는 다시 집안 가사 노동과 외출 가사 노동으로 분류하였다⁷⁾. 여가는 집안 여가와 외출 여가로 분류하고, 후자는 다시 제약 외출 여가와 자유 외출 여가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각 행동의 특성과 이에 대한 실제 조사 결과이다.

1) 노동 행동

노동의 의미는 노동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 또한 그 가치관의 형성은 거시적으로는 경제 체제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공통점은 인간의 일상 생활에서 기본적인 위치를 점유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에 대한 가치관은 사회 제분야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점점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즉, 노동은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생활 자체의 질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으로까지 상승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대상중 하나가 취업 주부이다⁸⁾. 즉, 주부의 노동이 전통적으로 집안에서 소용되던 것에서 취업에 의해 집밖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따라, 취업 주부의 집밖에서의 노동의 대가는 경제적인 측면과 개인의 자아 발전이라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기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사 노동은 집안 가사 노동을 중심으로 외출 가사 노동을 병행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⁹⁾. 그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교통의 발달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자동차에 의해 공간적인 이동이 용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 파악된 노동 행동의 평일과 주말의 특징은 1일 소요되는 시간면에서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직업 노동 시간은 평균 평일 4.52, 토요일 2.89에 비해 일요일은 0.39 시간으로 짧게 나타났으며, 일요일의 경우 자영업을 반영한다. 또한 직업 노동 시간의 최소치는 0이나 최대치는 평일과 토

요일에 13시간, 일요일에 12시간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직업 노동 시간의 표준편차는 일요일에 비해 평일과 토요일에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평일의 직업 노동 시간은 다양한 개인차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집안 가사 노동 시간은 일요일의 평균이 3.83 시간으로 평일과 토요일에 비해 다소 짧았으나, 전체적으로 표준 편차의 차이는 적은 편이어서, 개인간의 차이 역시 적게 나타난다. 외출 가사 노동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1시간 이내로 짧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 범주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다목적 외출 여가에 포함된 채 나타나는데 기인한다. 즉, 외출 가사 노동은 표준 편차가 적어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합리적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 행동에서 본 주부의 일상 행동은 시간과 공간면에서 보다 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되고 있다.

2) 여가 행동

최근 경제의 급성장과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생산 활동으로부터 벗어난 여가 활용을 통해, 생활의 재충전을 취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관광 지리학 내지 여가 지리학 연구도 진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과 1995년의 국민 생활 비교 조사¹⁰⁾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레저 활동과 T.V 시청 시간이 각각 13분, 20분씩 증가한 것 등을 비롯해 여가 시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주된 원인은 여성들의 사회 활동 시간과 성인 남녀의 주말 레저 활동 시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시간 이용 변화는 국민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여성중에서도 주부라는 계층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개인의 여가 시간이라고 하기 보다는 가족이라는 집단 내에서의 여가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부의 여가 행동의 기준은 노동 행동에서와 같이 집안과 집밖을 중심으로 하였다. 집밖에서 이루어지는 여가는 다시 타인과 관계하는 여가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제약 외출 여가와 자신이 시간 계획을 세워 보내는 자유 외출 여가로 분류

하였다¹¹⁾. 특히, 외출 여가의 세분은 제약 외출인가 자유 외출인가에 따라 시공간면에서 행동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고려하였다.

본 조사에서 파악된 여가 시간의 평일과 주말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집안 여가의 평균 시간은 평일이 4.70인데 비해, 토요일은 6.20, 일요일은 5.95로 토요일에 가장 두드러진다. 제약 외출 여가는 전체적으로 평균 2시간 이하이나, 그중 일요일이 다소 높았다. 자유 외출 여가도 평일과 토요일은 평균 2시간 이하인데 비해, 일요일은 3시간 이상으로 나타나며, 표준 편차는 3.70으로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다.

결국, 여가 행동에서 본 주부의 일상 행동은 집안 여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외출 여가는 1주일 중 일요일에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집안 가사 노동이 일요일에 가장 짧은 것과 대비된다. 또한 토요일 주부의 일상 행동은 평일이나 일요일보다 집안에서 행해지는 시간이 길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토요일이 평일과 일요일의 중간적 성격으로 주부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즉, 토요일은 주부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오후부터 직장과 학교에서 가족들이 귀가함으로써, 주부 개인의 시간보다는 가족이라는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시간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표 1. 일상 행동의 1일 평균 소요 시간

(단위:시간)

일상행동	평 일	토요일	일요일
직업노동	4.52 (4.65)	2.89 (3.57)	0.39 (1.91)
집안가사노동	4.12 (1.91)	4.32 (2.37)	3.83 (2.15)
외출가사노동	0.91 (1.57)	0.55 (1.03)	0.35 (1.11)
집안여가	4.70 (2.19)	6.20 (2.90)	5.95 (2.75)
제약외출여가	1.19 (1.86)	1.21 (1.91)	1.93 (2.73)
자유외출여가	1.50 (2.42)	1.62 (2.44)	3.16 (3.70)
수 면	7.04 (1.01)	7.19 (1.23)	8.36 (1.50)

주) ()안의 수치는 각각 표준 편차를 나타냄.

이하 집안가사노동은 집안가사, 외출가사노동은 외출가사, 제약외출여가는 제약여가, 자유외출여가는 자유여가로 표기함.

3) 수면 행동

수면은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행동이다. 또한, 수면은 노동과 여가의 다양한 양상에 비해, 누구에게나 정적인 단일 양상을 띠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수면 행동은 평일과 주말에 나타나는 시간상의 비교가 가능할 뿐, 공간상의 비교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주부의 수면 시간은 일요일에 8.36 시간으로 평일보다 약 1.30시간 길다. 또한, 수면 시간은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1시간까지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하나, 표준 편차는 적어 일부에만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상기한 국민 생활 비교 조사¹²⁾에 의하면, 일요일은 45%가 오전 8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면 행동에서 본 주부의 일상 행동은 수면을 일종의 휴식 상태로 간주한다면, 특히 일요일에, 집안 여가의 변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개인 속성과 일상 행동의 관계

본 장에서는 전 장에서 행한 각각의 일상 행동을 개인 속성과 관련시켜 고찰하기로 한다. 조사 대상자의 개인 속성은 표 2와 같다. 조사 대상자는 가능한 한 다양하게 개인 속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일상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주기수와 통행수 단위에서 파악하고, 다음에

각각의 일상 행동을 개인 속성과 관련지어 고찰하기로 한다.

1) 주기수와 통행수의 관계

Hanson(1980a)에 의하면, 통행(trip)이란 자택을 떠나서 귀가할 때까지의 공간적 이동을 의미한다. 한편, 교통 공학(佐佐木綱, 1970)에서는 Hanson이 말하는 통행의 의미가 주기(cycle)를 지칭하고, 주기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동의 의미로서 통행을 지칭한다¹³⁾.

본고에서는 주기와 통행의 의미로 교통 공학의 범주를 기준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1일 총 통행수는 몇회의 주기로 구성되는가, 또는 1회의 주기는 몇회의 통행으로 구성되는가, 평일과 주말에 따른 주기와 통행의 빈도수는 어떤 양상을 띄는가 등의 고찰이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다목적 통행의 발생률 고찰도 가능하게 된다.

표 3은 위에서 언급한 주기수와 통행수의 관계를 분석한 내용이다. 주기는 평일과 주말 모두 1회가 대부분이나, 평일에서 일요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또한, 2회 이상의 주기는 평일과 주말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주말의 경우 평일보다 공간적 이동이 낮음을 의미한다. 실제 주말의 경우, 10.6%가 전혀 이동하지 않고 있다. 즉, 주말은 평일에 비해 확실적인 공적 업무에서 벗어나 사적 행동을 함으로서 보다 다양한 행동의 범주가 나타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통행은 2회인 경우가 약 1/2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그 중 주기가 2회인 경

표 2. 조사 대상자의 개인 속성(단위:시간)

(단위 : %)

구 분	카 테 고 리				
연 령	20대(21.2)	30대(28.0)	40대(21.2)	50대(20.5)	60대이상(9.1)
취업정도	전업주부(47.7)	학생(2.3)	전업취업(37.9)	파트타임취업(12.1)	
교육정도	중졸 이하(21.2)	고졸(38.6)	전문대졸 이상(37.9)	무응답(2.3)	
가족 수	2인(12.9)	3인(22.0)	4인(31.8)	5인(21.2)	6인 이상(12.1)
주 거 형	공동 주택 (55.3)	단독 주택 (41.7)	기타 (3.0)		
거 주 지	CBD 1km이내(3.8)	CBD 1-3km(56.8)	CBD 3km이상(37.9)	무응답(1.5)	

주) 이하, 취업정도는 취업, 교육정도는 교육으로 표기함.

표 3. 주기수와 통행수의 관계

(단위 : %)

평일 (0.00)		토요일 (0.00)		일요일 (0.00)	
주기수	통행수	주기수	통행수	주기수	통행수
0회	0.0	0회	10.6	0회	10.6
1회	76.5	1회	69.0	1회	63.6
		2회	41.7	2회	25.0
		3회	18.2	3회	0.8
		4-6회	9.1	4-6회	0.8
2회	22.7	2회	18.9	2회	25.0
3회	0.8	3회	1.5	3회	0.8
합	100	합	100	합	100

주) ()안의 수치는 주기수와 통행수의 χ^2 검정 결과 유의미를 나타낸 유의수준 ($\alpha(0.05)$)을 표기함.

우, 4-6회의 통행이 대부분을 나타낸다. 토요일은 평일과 일요일에 비해, 특히 1회 주기 내에 4-6회의 다목적 통행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서도 언급한 토요일이 갖는 특성때문인 것으로 고려된다. 즉, 오전의 공무후에 오후에 사적인 일을 병행하고 귀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일요일은 사적인 일이 하루 종일 가능한 특성 때문에 4-6회의 다목적 통행이 2회 주기 안에서 두드러진다. 즉, 자택을 중심으로 왕복 행동이 시간상으로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요일의 경우, 1회 주기의 대부분이 2회 통행인 단일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통행수가 3회 이상의 다목적인 경우¹⁴⁾는 평일과 토요일에 약 1/2을 보이고, 일요일은 약 35 %로 낮게 나타난다. 즉, 일요일의 일상 행동은 1주일 중에서 가장 단일한 공간 이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토요일의 경우는 다목적 통행에서부터 통행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가장 다양한 일상 행동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개인 속성과 통행수의 관계

본 절에서는 전 절에서 고찰해 본 전반적인 통행 양상을 개인 속성과 관련시켜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표 4는 개인 속성과 통행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관계에서 유의미는 평일에 연령과 취업 정도에서, 토요일은 취업 정도와 교육 정도 및 주거형에서 나타났다. 일요일의 통행은 개

표 4. 개인 속성과 통행수의 관계

개인 속성	통행수	평일	토요일
연 령		0.05	N.S
취 업		0.05	0.00
교 육		N.S.	0.04
가 족 수		N.S.	N.S.
주 거 형		N.S.	0.04
거 주 지		N.S.	N.S.

주) 수치는 χ^2 검정 결과 유의미를 나타낸 유의수준 ($\alpha \leq 0.05$)을 표기한 것이고, N.S.는 무의미($\alpha > 0.05$)를 표기함. 개인 속성과 일요일 통행수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음.

인 속성과 무관하게 나타남으로서 개별적 양상을 보인다. 이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유의미는 토요일의 통행수와 취업 정도에서 볼 수 있다. 즉, 전업 취업 주부의 경우 4회 이상의 통행수가 두드러졌는데¹⁵⁾, 이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에 다목적 통행을 한 후 귀가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이는 시공간 제약이 토요일에 가장 완만한 것을 반영한다. 그 외 토요일 다목적 통행은 고학력층과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층에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일은 50대 이상일수록 통행수가 3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연령층이 가사와 육아, 취업 등의 제약을 받음으로서 집안을 중심으로

통행수가 낮은 것과 상반되는 현상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전업 주부일수록 취업 주부에 비해 통행수가 잦았다. 이는 토요일의 양상과 대비되는 것으로, 전업 주부는 평일이 토요일보다 개인적인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개인 속성에서 고찰해 본 통행 양상은 취업 정도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평일과 토요일의 양상이 대조적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개인 속성과 행동 소요 시간의 관계

본 절에서는 3장에서 행한 각각의 일상 행동을 개인 속성과 관련시켜 고찰하기로 한다. 각각의 일상 행동은 관계 유무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각 행동의 소요 시간에 대한 평균(표 1)을 중심으로 하여, 평균 이하와 이상의 단계로 분류하였다(표 5).

개인 속성과 일상 행동 소요 시간의 관계 유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개인 속성과 각각의 일상 행동의 관련은 평일에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히 평일에 수면을 제외한 노동과 여가 시간이 취업 정도와 모두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업 정도에 따라 집안과 집밖에서의 노동과 여가 시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취업 주부일수록 직업 노동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안 가사 노동 시간이 3시간 이하로 적다. 이는 집안 가사 노동이 6시간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 전업 주부에서 나타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외출 가사 노동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나타낸다. 여가 시간면에서는 전업 주부의 경우, 집안 여가가 6시간 이상인 것에 비해, 취업 주부는 3시간 이하로 적게 나타남으로서, 노동 시간과의 대비를 뚜렷히 나타내고 있다. 외출 여가의 경우에서도 자유나 제약 모두 동일하게 취업 주부가 1-2 시간인 것에 비해, 전업 주부의 약 1/2은 3시간 이상이며, 극단적으로 9시간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 외 평일은 행동 소요 시간에서 연령, 교육 정도, 가족수와도 관계를 나타내며, 노동 행동에서 뚜렷하다. 특히, 직업 노동 시간의 경우,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가족수가 3인 이하의 핵가족에서 6시간 이상을 나타냈다. 이는 여성의 취

표 5. 일상 행동 소요 시간의 분류

(단위 : 시간(%))

일상행동	평일	토요일	일요일
직업노동	0 (49.2)	1 (53.0)	0 (94.7)
	4 (3.8)	2-3 (2.3)	1-12 (5.3)
	6-7 (47.0)	4-13 (44.7)	
집안가사	0-3 (40.9)	0-3 (36.4)	0-2 (30.3)
	4-5 (38.6)	4-5 (34.1)	3-4 (35.6)
	6-9 (20.5)	6-13 (29.5)	5-13 (34.1)
외출가사	0 (63.6)	0 (73.5)	0 (85.6)
	1-2 (23.5)	1-2 (21.2)	1-8 (14.4)
	3-9 (12.9)	3-5 (5.3)	
집안여가	0-3 (28.8)	0-5 (43.2)	0-4 (33.3)
	4-5 (35.6)	6-7 (18.2)	5-6 (25.8)
	6-10 (35.6)	8-14 (38.6)	7-12 (40.9)
제약여가	0 (54.5)	0 (59.8)	0 (55.3)
	1-2 (28.8)	1-2 (17.4)	1-2 (12.1)
	3-8 (16.7)	3-10 (22.7)	3-12 (32.6)
자유여가	0 (64.4)	0 (58.3)	0-2 (52.3)
	1-2 (9.8)	1-2 (15.2)	3-4 (15.2)
	3-9 (25.8)	3-11 (26.5)	5-10 (32.6)
수 변	4-6 (27.3)	4-6 (27.3)	4-7 (24.2)
	7-8 (69.7)	7-8 (59.8)	8-9 (54.5)
	9 (3.0)	9-11 (12.9)	10-11(21.2)

주)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각각 행동별로 합계 100임.

업 선호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토요일의 일상 행동은 평일과 동일하게 취업 정도에 의한 시간 배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평일과 그 경향은 동일해도, 소요 시간면에서는 토요일이라는 특성에서 다소의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집안 여가 시간이 취업 유무에 상관없이 평일보다 많은 점을 들 수 있다. 즉, 집안 여가 시간이 전업 주부의 경우에 8시간 이상, 취업 주부의 경우에 5시간 이하를 나타냄으로서,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울러 제약 외출 시간도 1-2 시간으로 짧거나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점에서 보아도, 토요일의 집안 여가 시간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요일의 일상 행동은 직업 외에도 연령, 교육 정도, 가

표 6. 개인 속성과 일상 행동 소요 시간의 관계

	평 일						토 요 일					
	연령	취업	교육	가족	주거	거주	연령	취업	교육	가족	주거	거주
직업노동	0.01	0.00	0.00	0.00	N.S.	N.S.	N.S.	0.00	N.S.	N.S.	N.S.	N.S.
집안가사	0.02	0.00	N.S.	0.01	N.S.	N.S.	0.03	0.00	0.02	0.00	N.S.	N.S.
외출가사	N.S.	0.00	0.05	N.S.	N.S.	N.S.	N.S.	N.S.	N.S.	0.05	0.03	N.S.
집안여가	N.S.	0.00	0.02	N.S.	N.S.	N.S.	N.S.	0.00	N.S.	N.S.	0.05	N.S.
계약여가	N.S.	0.00	0.01	N.S.	N.S.	N.S.	N.S.	0.01	N.S.	N.S.	N.S.	N.S.
자유여가	N.S.	0.00	N.S.	N.S.	N.S.	0.00	0.02	N.S.	N.S.	N.S.	0.01	N.S.
수 면	N.S.	N.S.	N.S.	0.00	N.S.	N.S.	0.01	N.S.	N.S.	N.S.	N.S.	N.S.

주) 수치는 표 4의 주)를 참조.

개인 속성과 일요일 일상 행동 소요 시간의 관계는 미약하여 생략함. 주거는 주거형을 의미하고, 거주는 거주지를 의미함.

족수 등과도 관련을 나타내고 있어 평일과 동일하나, 행동면에서 집안 가사 시간과 관련이 뚜렷하다. 즉, 집안 가사 시간의 경우, 30대 이하의 젊은 층, 고학력층, 핵가족층에서 3시간 이하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유 외출 시간이 길고, 핵가족일수록 대부분 외출 가사 노동 시간이 없다는 점과 관련하고 있다.

평일과 비교하여 토요일의 일상 행동에만 관련되고 있는 속성으로 주거형을 들 수 있다. 즉, 공동주택 거주자일수록 외출 가사 노동 시간과 집안 여가 시간이 단독 주택 거주자에 비해 적게 나타나며, 자유 외출 시간은 길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동 주택의 관리상의 편의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요일의 일상 행동은 전반적으로 개인 속성과의 관계가 희박하게 나타났다. 즉, 일요일의 일상 행동은 개인 속성에 의한 확실적인 패턴을 찾기 어렵고, 개인 속성마다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일과 토요일에 비교하여 수면 행동에서 개인 속성과 관련을 보인 점이 특징이다. 일요일의 수면 시간은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층, 학력이 높은 층, 핵가족층일수록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상, 개인 속성과 행동 소요 시간의 관계는 평일과 토요일에 취업 정도와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그 외 일부의 행동 소요 시간과 연령, 교육 정도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 지역은 일상 행

동의 시간을 배분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 교통 수단 발달과 더불어 자동차 이용의 증가로 인해, 일상 행동이 시공간상의 제약으로부터 완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 등의 배치가 원활한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4) 개인 속성과 행동 패턴의 관계

본 절에서는 일상 행동중 외출 행동을 중심으로 외출의 목적에 따라 행동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개인 속성과 관련시켜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일상 행동에 대한 유형은 외출 행동을 중심으로 보면 직업 노동, 외출 가사 노동, 계약 외출 여가, 자유 외출 여가 등의 4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그러나, 행동 유형을 보다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4개의 범주는 다시 노동 행동과 여가 행동으로 2분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1일 공간 이동 상황은 자택을 시발지와 종착지로하여 표기될 수 있다. 이 유형은 총 29가지로 나타났다. 이 중 각 유형별 빈도수가 10 이상인 경우를 나타낸 것이 표 7이다¹⁷⁾.

평일과 토요일의 대표적인 외출 행동 유형은 WH(집→노동→집)의 2회 통행형이다. 이는 자택에서 출발하여 노동을 끝내고 귀가하는 단순형이다. 다음으로 1주일 동안 요일에 상관없이 자주 등장하는 유형은 LH(집→여가→집)로, 이는 외출하여 여가를 보내고 귀가하는 형태이다. 그 외 평일

표 7. 조사 대상자의 외출 행동 유형 분류

(단위 : %)

행동유형	평일	토요일	일요일
W H 형	36.4	22.7	
L H 형	13.6	18.9	47.7
WWH 형	9.1		
WLH 형		12.9	
LHLH형			17.4
기 타 형	40.9	45.5	24.2
행 동 無			10.6
합	100	100	100

주) W는 노동행동, L은 여가행동, H는 자택을 의미함. 기타 형은 본문의 주)17을 참조.

과 토요일에는 WWH(집→노동→노동→집)나 WLH(집→노동→여가→집)형 등 노동 중심의 외출 행동을 나타내는데 비해, 일요일은 LHLH(집→여가→집→여가→집)형의 여가를 중심으로 한 다목적 통행을 나타낸다.

표 8은 이와 같은 외출 행동 유형과 개인 속성의 관계를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평일과 토요일의 외출 행동 유형은 취업 정도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토요일은 연령과도 관계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평일의 외출 행동은 취업 주부와 30대 이하의 젊은 층일수록 WH의 단순형인데 비해, 전업 주부와 50대 이상의 중년층일수록 일정하지 않는 다양한 행동 양상을 보였다. 즉, 취업 주부인 경우, 직업을 중심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므로 획일적인 행동 유형이 전개된다.

한편, 토요일의 외출 행동은 전업 취업 주부일수록 WLH형이 두드러지고 그 외 다양한 유형을 갖는데 비해, 전업 주부의 경우는 평일과 다르게 WH나 LH의 단순형 비율이 높다. 이는 전업 취업 주부와 전업 주부가 갖는 토요일 오후의 상반된 역할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전자는 토요일 오후에 공무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시간을 갖을 수 있는데 비해, 후자는 평일보다 개인적인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5) 개인 속성과 일상 행동의 관계

본 절에서는 소요 시간에서 본 일상 행동이 개

표 8. 개인속성과 외출행동유형의 관계

속성/유형	평일	토요일
연 령	0.00	N.S.
취 업	0.00	0.00
교 육	N.S.	N.S.
가족수	N.S.	N.S.
주거형	N.S.	N.S.
거주지	N.S.	N.S.

주)수치는 표4의 주)를 참조. 개인속성과 일요일 행동 유형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음.

인 속성에 의해 판별될 수 있는가를 판별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에 따라 일정한 속성을 가진 개인에 대한 일상 행동의 파악이 가능하다.

표 9는 판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정준 상관 계수를 통해 본 개인 속성과 일상 행동의 관계는 평일과 토요일 각각 취업 정도와 0.966, 0.838이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조사 대상자의 취업 정도인 전업 주부, 학생, 전업 취업 주부, 파트 타임 취업 주부라는 속성에 의해 평일과 토요일의 노동 행동과 여가 행동 및 수면 행동 등의 일상 행동 분류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 외 연령, 교육 정도 등의 속성도 평일과 주말의 일상 행동 분류를 가능하게 하나, 그 정도는 미약하다. 또한, 거주지라는 속성은 일상 행동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4. 결 론

현대 사회는 흔히 정보화 사회, 국제화 사회, 노령화 사회라는 특징으로 언급된다. 여기서 현대 사회의 이런 특징을 한마디로 총칭한다면, 소프트 사회라고 대신할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가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하고, 이 가치관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사회의 구성원인 주체에 대한 인식이 사고의 전면에 드러나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사회의 구성원은 성비면에서 보면 유사하

표 9. 개인 속성과 일상 행동의 판별

속성/행동	평일	토요일	일요일
연 령	0.4421*	0.4459*	0.4908*
취 업	0.9662**	0.8375**	0.2729
교 육	0.4342*	0.4080*	0.4078*
가족수	0.5008*	0.5000*	0.3602
주거형	0.2985	0.4006*	0.3056
거주지	0.2263	0.2526	0.2875

주) 수치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일상 행동과 개인 속성별 판별 분석 결과인 정준상관계수를 나타냄. **는 χ^2 검정 결과 $\alpha < 0.00$ 에서, *는 $\alpha < 0.05$ 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나, 성별에 따른 역할면에서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성별에 대한 역할의 차이를 일정 부분에서는 감소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여성의 역할에 나타나는 변화는 두드러지고 있다. 즉, 여성이 취업을 선호함으로써 사회 참여도가 높아지고, 소자녀에 의한 가사의 부담이 덜어짐으로서 사회 활동이 잦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여성의 역할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그들의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나타나는 일상 행동 궤적을 조사하고, 이를 개인 속성과 관련시켜 고찰해 보았다. 특히 여성중에서도 주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 행동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주부의 역할 변화는 여성 개인의 변화임과 동시에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침으로서, 결국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파급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광주시 주부의 개인 속성과 일상 행동에 대해 고찰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일상 행동은 집안과 집밖을 주요한 기준으로 하여, 7개로 분류하였다. 이는 직업 노동, 집안 가사 노동, 외출 가사 노동, 집안 여가, 제약 외출 여가, 자유 외출 여가, 수면이다. 또한 개인 속성은 연령, 취업 정도, 교육 정도, 가족수, 주거형, 거주지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주기수와 통행수의 관계는 주기가 빈번해질수록 다목적 통행을 나타내나, 대부분이 1회 주기를 나타냈으며, 이는 평일에 두드러졌다. 토요일은 1회 주기 안에서도 3회 이상의 다목적 통행 비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개인 속성과 통행수의 관계는 평일과 토요일의 양상이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요일의 통행은 취업 정도, 교육 정도, 주거형이라는 속성과 관련을 보였으나, 그 중에서도 취업 정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나타냈다. 즉, 토요일에 전업 취업 주부는 4회 이상의 다목적 통행을 나타냈다.

넷째, 개인 속성과 행동 소요 시간의 관계는 평일과 토요일의 일상 행동이 소요 시간면에서 취업 정도, 교육 정도, 연령, 가족수라는 속성과 관련을 나타냈다. 그 중에서도 취업 정도와 행동 소요 시간의 관계가 뚜렷했다. 즉, 취업 주부일수록 전업 주부에 비해 직업 노동 시간이 많은 반면, 집안 가사 노동 시간이 적었다. 또한 여가면에서는 취업 주부일수록 전업 주부에 비해 집안 여가 시간은 물론 외출 여가 시간도 적게 나타났다.

다섯째, 개인 속성과 행동 패턴의 관계는 먼저, 행동을 외출 행동을 중심으로 노동 행동과 여가 행동으로 분류하고, 통행의 목적과 수에 따라 29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다음에 빈도수가 10회 이상인 유형을 중심으로 개인 속성과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평일과 토요일의 외출 행동 유형이 취업 정도와 관련을 나타냈으나, 서로 대조적이었다. 즉, 취업 주부일수록 평일에는 WH(집→노동→집)의 단순형을 나타내는 데 비해, 토요일에는 특히 전업 취업 주부일수록 WLH(집→노동→여가→집)형을 중심으로 그 외의 다목적 유형을 나타냈다. 반면, 전업 주부는 평일에는 다목적, 토요일에는 단순형을 나타냈다.

여섯째, 개인 속성과 일상 행동의 관계는 판별 분석을 통해 본 결과, 취업 정도에 의해 평일과 토요일의 일상 행동에 대한 판별이 가능성이 고찰되었다.

일곱째, 1주일의 일상 행동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분류해 볼 때, 토요일에 공간적 이동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상, 본고는 광주시 주부의 개인 속성과 일상 행동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이 결과를 실제 일상 행동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점이 필요하다. 즉, 조사 방법론상의 문제로 미세한 행동 분류와 분단위의 정확한 행동 소요 시간의 기입 문제를 들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일상 행동에 대한 제약 해결상의 문제로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넘기기로 한다.

註

- 1) 조사 대상으로 기혼 여성인 주부를 택한 이유는 주부의 인력이 사회로 확대될 경우, 가정 내에서의 역할 축소를 보충해야 하는 문제에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됨과 동시에, 남성 위주의 사회속에 여성의 참여로 인해 사회 구조 또한 변화를 맞게 된다는 시점을 감안하여, 실제 주부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조사해 봄으로서, 그 변화 양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간주함.
- 2) 연령별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 취업 정도별 시공간 확보의 차이, 교육 정도별 정보의 차이, 가족수별 가족 제도에 따른 제약의 차이, 주거형별 관리상 편의성의 차이, 거주지별 도심과 접근성의 차이에 따라 일상 행동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고려함.
- 3) χ^2 검정은 범주적 특성을 지닌 2개의 변수에 대한 관계의 유무와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본 조사에서 행한 각각의 행동에 대한 소요 시간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범주적 데이터로 변환시키기 위해, 1일 행해진 각각의 행동에 대한 평균시간을 중심으로 그 이하와 그 이상의 단계로 분류하여, 소요 시간의 다소 정도를 대신함.
- 4) 판별 분석을 통해서서는 어떤 개인 속성에 의해서 일상 행동의 판별이 가능한가를 고찰함. 예를 들면, 평일이나 주말의 일상 행동을 결정짓는데 어떤 개인 속성이 영향을 미치는가, 더 나아가 어떤 속성의 어떤 범주에 속하는 개인이라면 평일이나 주말의 일상 행동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할 것인가의 예측도 가능하게 됨.
- 5) 광주 광역시의 인구는 1995년 현재 1,273,854인이며, 면적은 501.32 km²임.
- 6) 총 5개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의 인구밀도는 1995년 현재 동구 3270, 서구 10823, 남구 9821, 북구 3702, 광산구 715로 그 차이가 큼. 서구는 1995년 3월 1일 서구와 남구로 분구되었으며, 분구 이전인 1992년 광주시의 인구 밀도인 동구 3938, 서구 10670, 북구 2899, 광산구 426과 비교하면 변화가 나타남.
- 7) 직업 노동은 본조사의 경우, 대부분 집밖에서 행해졌으며, 일부 자택과 인접하여 자영업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집안과 집밖이라는 구분의 의미가 약함.

- 8)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1986년 43.1 %에서 1995년 48.3 %로 점증되고 있는 추세임.
- 9) 집안 가사 노동은 주로 육아와 가사 돌보기 등을 들 수 있고, 외출 가사 노동은 시장이나 슈퍼마켓을 이용한 식료품 중심의 일상용품 구입, 은행이나 각종관공서 업무, 가족의 통근·통학 돕기 등을 들 수 있음.
- 10) 1995년 2월 29일자 동아일보에 게재 된 내용으로, 서울대 언론 정보 연구소에서 1994년 10월에 전국 10세 이상의 국민 3500명을 대상으로하여 실시한 결과임.
- 11) 집안 여가의 범주로는 텔레비 시청, 라디오 청취, 잡지, 독서, 가족간의 대화 등을 들 수 있음. 제약 외출 여가의 경우는 각종 모임이나 종교 활동이 주를 이루며, 자유 외출 여가는 각종 취미 활동과 백화점이나 대형점을 이용한 선매품이나 전문품 중심의 쇼핑 등이 해당 됨.
- 12) 주 10)을 참조.
- 13) 교통 공학에서의 trip의 의미로 Hanson은 trip segment란 용어를 사용함.
- 14) 예를 들면, 통행수 2회인 경우는 집→직장→집을 들 수 있으며, 통행수 3회인 경우는 집→직장→수영장→집 등으로 다목적 통행은 통행수가 3회 이상인 경우를 말함.
- 15) CROSSTAB의 내용은 방대하여 이후로도 본문에서 생략하였음.
- 16) 각각의 일상 행동 소요 시간 조사는 시간 단위로 산정되었으며, 이들 평균은 분 단위가므로 평균이 포함된 전후의 시간대를 기본으로 그 이하와 그 이상의 시간대로 구분하였음.
- 17) 29가지 유형중 표 7에 나타나지 않은 기타형 23가지는 다음과 같음.
LLH, LWH, WHLH, WWWW, WHWH, WLLH, LWLH, LHWH, WLWH, LLWH, WHWWH, LLLLH, WHLWH, LHWWH, WLLLH, WHLLH, LHWLH, LHLWH, WWHLH, LHLHLH, LHLLWH, LLLLLH, LWLWHW 임.

文 獻

- 광주 광역시, 1995, 시정 백서.
 엄 정국·문 경일, 1989, 통계 분석을 위한 SPSS/PC² 영진출판사.
 통계청, 1996, 한국통계연감.
 荒井良雄 外 3人 編譯, 1989, 生活の空間 都市の時間,

- 古今書院.
- 川口太郎・神谷浩夫, 1991, 都市における生活行動研究の視點, 人文地理, 43(4), 44-63.
- 若林芳樹, 1984, 廣島都市圏住民の日常的空間行動パターン, 人文地理, 36(2), 15-34.
- 高橋伸夫, 1987, 日本の生活空間にみられる時空間行動に関する一考察, 人文地理, 39(4), 1-24.
- 神谷浩夫, 1987, 名古屋市における主婦の日常活動, 人文地理, 39(6), 19-35.
- 岡本耕平, 1991, 活動別滞留人口からみた名古屋市の時空間構造, 名古屋大學 文學部研究論集, 110, 1-14.
- 岡本耕平, 1995, 大都市圏郊外住民の日常行動と都市のデイリー・リズム, 地理學評論, 68(1), 1-26.
- 佐佐木岡, 1970, パーソントリップの分類法, 交通工學, 4(1), 3-9.
- Burnett, P., 1980, Spatial constraints-oriented modeling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movement, microeconomic theory and urban policy, *Urban Geography*, 1, 53-67.
- Hanson, P., 1977, The activity pattern of elderly households, *Geografiska Annaler*, 59B, 109-124.
- Hanson, S. and Hanson, P., 1980, Gender and urban activity patterns in Uppsala, Sweden, *Geographical Review*, 70, 291-299.
- Hanson, S., Urban travel linkages ; a review, in D. A. Hensher, and P.R. Stopher, ed., 1979, *Behavioral Travel Modeling*, Croom Helm, 81-100.
- Hanson, S., 1980a, Spatial diversification and multipurpose travel : Implications for choice theory, *Geographical Analysis*, 12, 245-257.
- Hanson, S., 1980, The importance of the multipurpose journey to work in urban travel behavior, *Transportation*, 9, 229-248.
- Hanson, S., 1983, The determinants of daily travel-activity patterns: Relative location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Urban Geography*, 3, 179-202.
- Szalai, A. et al. eds., 1972, *The Use of Time*, Mouton.
- Thrift, N. J., Behavioral Geography, in N. Wrigley, N. and Bennet, eds., 1981, *Quantitative Geography : A British View*, Routledge & Kegan Paul, 352-365.